

##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 파키스탄의 한 빵집 풍경

제공: WMM

철판에서 익고 있는 빵은 자빠띠다. 자빠띠를 커리에 찍어먹는 것이 파키스탄의 주식이다. 자빠띠는 밀가루 반죽에 소금으로만 간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맛은 없다. 게다가 향이 강한 커리 때문에 외국인의 입맛에는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자빠띠와 커리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가장 편안한 음식이다. 주식(主食)은 그런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식과 같은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매일 먹어야만 살 수 있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인이 파키스탄 음식을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생명의 떡이다.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는 것이요, 미련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먹을 것이 그것밖에 없다면... 병으로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은 먹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음식을 외면하지 않는다. 영혼의 중병으로 고통받는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지금,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기를 기도한다. [GNPNEWS]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요한복음 6:47~48)

###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라”

## 개종금지법 시행 1년 된 네팔의 기독교

### 기독교인은 매년 10% 정도 증가

개종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네팔에서 선교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구가 매년 10% 정도 성장하고 있다고 CGN TV가 최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지난해 8월 개종 권유를 못하게 하는 새 종교법을 시행한 이후, 네팔에서 그동안 기독교집회 참석 이유로 체포된 현지인 목회자, 개종시도 혐의로 한국인 신자의 체포 등 다양한 핍박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5월에는 네팔교회 현지인 목회자가 기독교 집회에 참석하는데 대해 선교행위를 했다며 감옥에 가두고 함께 참석한 미국인 여성을 추방했다. 또 한 한국인은 개종시도 혐의로 체포됐다가 한화로 133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다. 네팔의 개정 종교법은 개종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기독교계에 따르면, 네팔 기독교인구가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이면 히말라야 산속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실제 본지 통

신원은 최근 몇 년 사이 현지인들이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것이 보이며 새로운 신자들이 곳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A선교사는 현지에서 몇 차례 현지 성도들과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신앙집회에서 복음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힌두민족주의 정당이 이끄는 인도가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것처럼,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네팔 정부 역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선교사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GNPNEWS]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15)

**기도** |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소망의 이유를 준비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88)

## 세상이 맘에 안 드십니까?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거쳐 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뭐 하나 속 시원하게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까? 다시 시작한다 해도 뻔죽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면초가 상황에서 곤혹스러워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죽음으로 정리하면 깨끗이 해결될 것 같기도 하시죠? 죽고 싶을 정도로 인생이 괴로운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나를 바르게 살려 애써 왔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애씀은 당신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 숭배자의 삶입니다. 세상은 항상 그런 당신을 응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 사람 모두가 또한 자아 만족을 위해 살고 있는 자아 숭배자들이며 결국 서로 이기적인 삶을 살며 함께 고통 속에 있다가 영원히 같이 멸망하자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당신 자신을 위해 몸부림치던 삶을 마감하십시오.

그러나 그 마감은 굳은 결심을 하고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당신

의 옛 자아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과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으로 당신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또 당신 안에 들어오시려 하십니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아의 만족을 위해 정신없이 살다가 고통받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분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일러스트=김경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신이 처한 환경은 더 이상 고통과 절망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친히 사시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그분의 승리로 이끄시는, 극적인 감격을 누리실 겁니다. [GNPNEWS]

###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복음기도총서1

내가 주를  
똥어주는  
전도편지  
100

“죽으면 모든 게 끝일까요?”  
“왜 그렇게 열심 사십니까?”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똥어서 접은 전도편지

값: 23,000원 (별책부록 포함)

\*별책부록의 전도편지 100장을 한 장씩 똥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긴과 보이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http://www.jakinnboaz.co.kr)

복음의소리 도서출판  
복음과기도미디어



# 팔레스타인 순교자 아내가 가져온 용서의 물결



▶ 폴린(왼쪽에서 두 번째)과 순교자의 아내들(출처: 한국순교자의소리 캡처)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는다. 팔레스타인의 한 순교자의 아내가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순교자의 아내들도 살인자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소리(VOM)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유일한 기독교 서점 주인 라미 아야드는 2007년에 순교했다. 라미는 여러 번 살해 위협을 받았지만 기독교 서점 문을 닫지 않았다. 그러다 거리에서 납치된 그는 고문 끝

에 총에 맞아 죽음을 당했다. 당시 그의 아내 폴린 아야드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폴린은 안전을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떠났다. 하지만 새로 이주한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시간제 일자리뿐이었고 급여도 형편없었다. 당국은 그녀의 남편을 죽인 범인의 신원을 감췄는데, 범인이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마스라는 테러 조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린은 “당시 라미를 죽인 살인

범이 끔찍하게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당하기를 원했지만 난 기도했다. 그리고 살인자를 용서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남편을 죽인 범인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폴린은 “주님께서 넌 용서받았고 용서했어.”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살인범을 용서하면서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십자가에 감사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했다.

라미를 죽인 범인이 하마스 고위 관리 암살 혐의로 기소되어 신원이 공개되었을 때, 폴린은 페이스북에 범인의 사진을 올리고 “이 사람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기록하기도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2년 가까이 지난 지금, 폴린은 자신과 비슷한 시련을 겪은 순교자의 아내들을 돕고 있다. 이 여성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폴린은 현재 기독교 순교자들의 아내들을 보살피고 있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남편을 잃은 무슬림 여성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GNPNEWS]

## 美 조지아주, 이미 통과된 심장박동법 시행 중지 판결

미국 조지아주에서 지난 5월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심장박동법(HB481)이 시행중지판결을 받았다고 애틀랜타저널 컨스티튜션(AJC)이 2일 보도했다. 연방 지법의 스티브 C.존스 판사는 지난 1일 낙태를 찬성하는 인권 단체들의 손을 들어줘 HB481의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다.

전미시민자유연대(ACLU) 조지아 지부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HB481은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HB481 시행 금지를 주장, 조지아주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1일 존스 판사는 HB481의 시행 중지 판결을 내리는 판결문에

서 “태아의 심장 박동 감지를 기준으로 낙태를 금지하게 되면 태아가 여성 자궁 밖에서도 생존 능력을 가지기 전 상태에서 본인의 임신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여성의 최종 권한이 박탈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HB481을 지지하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캔디스 브로스 대변인은 “우리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의 권리와 함께 모든 조지아 주민들이 동일하게 살고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게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존스 판사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지아주 낙태 금지 지지자들은 존스 판사의 HB481 시행 금지안



사진: freepik

무효를 위해 연방대법원까지 나가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는 낙태와 관련된 약 20건의 케이스들이 진행 중이다. [GNPNEWS]

## ‘열방기도정보’ 제작 편집 동역자 초대

기도24·365본부와 복음과기도미디어는 열방을 위한 기도정보 책자 제작에 참여할 동역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 세계 대륙과 각국의 상황을 집대성한 열방기도정보는 우리의 기도에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수록한 유용한 기도정보집이 될 전망이다.

동역자 모집 분야는 기도정보 집

필, 영문자료 번역, 그래픽 디자인, 교열, 편집 등이다. 2003년부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기도정보 제작과 기도자 동원에 참여한 기도24·365본부는 “이번 동역으로 십수 년간 기도정보를 만들어 본 기도정보팀의 다양한 노하우와 열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에 동역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격: 기도24·365 기도자 [매일 1시간씩 열방을 품고 전세계를 1년간 기도하는 기도24·365 네트워크(www.prayer24365.org)에 가입해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

문의: ☎ 010-6326-4641 [GN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9.22 ~ 10.4)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나이지리아 이슬람학교서 노예상태 500명 구출

나이지리아 북부 카두나 주의 이슬람학교 검 교정시설에서 매질과 구타, 교화를 빙자한 고문과 성적학대 등 쇠사슬에 묶여 사실상 노예상태로 지내던 약 500명의 남성과 소년들이 지난 26일 구출됐다고 영국 BBC방송과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교정을 빙자하여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아들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 이 일을 사용해주시길 기도합니다.

### 한국,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 '디지털 중독' 우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중독 상태인 아동·청소년은 작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리눅스가 최근 보도했다. 9~17세 아동·청소년 2510명 가운데 5.8%가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27.9%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폐해가 점점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비참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다음세대가 스마트폰이 아닌 주님을 생명 다해 찾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해주시길 강령합니다.

### 호주, 119년 만에 낙태 완전 합법화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낙태를 처벌 대상으로 제외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호주 전역에서 119년 만에 낙태가 합법화됐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6일 보도했다. 법안은 최대 22주 이내의 임신 여성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주님, 생명의 주권이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잘못 믿고 살인을 합법화하는 호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깨워주시사 다시 한 번 이 결정과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며 주님 경외함으로 담대히 싸워나가게 해주시옵소서.

### 멕시코에 망명 신청 급증... 올해만 4만 8000명

멕시코에 망명을 신청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멕시코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4만 8254명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2014년 망명 신청 건수가 21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멕시코로 몰리고 있는 난민들의 상황과 그들을 받고 섬겨야 하는 멕시코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어려움 당한 이웃과 자국민을 지혜롭게 돕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때 교회가 나그네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10월 14일 ~ 10월 26일

- 10월 14일 ~ 10월 19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서울 노원 / 봉화현교회(호\*\*)010-8852-0693, ▶경기 남양주 / 다윗의열쇠(윤\*\*)010-6281-0457, ▶경기 부천 / 산돌교회(박\*\*)010-9527-2468, 10.14~18(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10.14~15,18~19(19~22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10.15(10~12시) ▶경기 의정부 / 녹양교회(정\*\*)010-8700-9233, 10.15(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10.16(09~17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10.18(0~24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외 9교회 진행중.

- 10월 20일 ~ 10월 26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대구 동구 / 호산나교회(정\*\*)010-3822-8040, 10.20(12~24시) ▶대전 서구 / 반석중앙교회(임\*\*)010-2276-8221, 10.21,23~26(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10.22~23(06~18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290-4316, 10.22~23(10~22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10.23(06시)~24(06시)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10.24(10~15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4011-6719, 10.24~26(08~13시) ▶강원 춘천 / 샘물교회(이\*\*)010-8856-7726, 10.24(17시)~26(17시) ▶대전 대덕 / 갈보리교회(구\*\*)010-5402-9504, 10.25(09시)~26(12시) ▶대구 달성 / 하늘순교회(문\*\*)010-5373-5183, 그외 12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기획 | 헤브론선교대학교 선교영어대학 아웃리치

# 복음으로 달린 1만 300마일 미(美) 대륙 횡단 대장정

## ‘On the Road USA’ 85일간의 여정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1만 마일(1만 6000km)에 이르는 미국 대륙을 횡단했다. 출발지인 미국 LA에서 만난 많은 동역자들은 대부분 말했다. 너무 무모한 도전이라고. 더욱이 운전자 한 사람이 왕복도 아니고 미주 대륙을 사각형으로 그리며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들으며 출발했다. 헤브론선교대학교 선교영어대학(학장 김인화 선교사) 학생들과 교육선교사로 구성된 우리팀은 지난 6월 14일~9월 6일까지 85일간 미국 대륙을 횡단하며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온 더 로드 유에스에이(On the Road USA, 미국 대륙을 밟으며)’를 진행했다. LA를 시작으로 시애틀을 거쳐 다시 LA까지 총 1만 300마일을 달렸다.

2019년도 3월에 개교한 선교영어대학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며 1학기 동안 배웠던 선교영어를 학생들에게 실제 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미국으로 떠났다. 85일간 30개주 33개 도시를 렌트한 승합차로 이동하면서 밤에는 주로 텐트에서 숙식하며, 다니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며, 기도로 미국 교회를 중보했다. 85일간의 여정을 소개한다.

### 우려와 격려가 엇갈린 대륙 횡단

우리는 LA에서 1개월간 교포 자녀들을 위한 영어복음캠프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미주 일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60여 일 동안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동부에서 서부로 대륙 횡단을 할 계획이었다. 주위에선 우려와 격려가 엇갈렸지만 주님의 은혜로 온 더 로드는 시작되었다.

온 더 로드(On the Road)는 ‘집을 떠나 여행 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약속으로 받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은 여행 중에 우

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열한 믿음의 싸움으로 인도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가셨다.

우리는 한 달간 LA에 있는 구세군교회와 순회선교단 미주지부에서 진행하는 다음세대 복음캠프를 섬겼다. 구세군교회의 캠프에서 아이들과 영어로 교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다. 순회선교단에서 주관하는 다음세대 복음캠프에서 학생들은 훈련생으로 참여해 영어로 총체적인 복음을 들으며 전심으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다.

한 달 후, 본격적인 미국 횡단이 시작됐다. 일주일 만에 서부 LA에서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 구세군교회에 도착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운전자는 단 한 명. 사람으로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했다. 정해진 숙소 두 곳을 제외하고는 주님이 머물라 하시는 곳에 텐트를 치고 잤다. 처음 텐트를 쳤을 때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중반에 접어들면서 20분 만에 텐트 네 동을 설치하는 노련함을 갖게 됐다. 북부 지역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져 캠핑 존(zone)에서 자는 것이 쉽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육체는 피곤해져 갔고 새벽에 내리는 이슬로 추위를 피할 수 없었다. 아침이면 모두 오들오들 떨며 텐트에서 나와 아침을 먹고 선포하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몸이 지쳐 따뜻한 곳에서 쉬고 싶어 할 때쯤이면 따뜻한 숙소로 인도하셔서 편안한 침을 누리게 하셨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그리스도인들의 나그네 삶을 조금이나마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다. 그들은 광야에서 웃도, 신발도 헤치지 않았다 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는 60여 일이 지나자 웃에 구멍이 나고 양말도 늘어나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했다.



▶ ‘나이아가라 폭포 공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

### 텐트에서 노숙하며 복음을 전하다

미주를 횡단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들을 많이 보게 됐다. 그랜드캐니언과 나이아가라 폭포, 와이오밍주 몬태나주 아이다호주 3개 주에 걸쳐 있는 엘로스턴 내셔널 파크의 광대한 자연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확증시켜 주었다. 하늘의 구름만 보아도 각양의 다른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도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God created everything. He is Creator. We are all His creation. So we have to worship Him).”라고 외쳤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본 후 우리는 필라델피아에 도착했다. 도심에 있는 켄싱턴 거리에 도착하자마자 맞닥뜨린 것은 마약에 취해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영혼들이었다. 이곳은 경찰도 제재하지 못하는 죽음의 거리였다. 한낱인대도 거리마다 버섯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즐비했다.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은 듣지 않았다. 죽은듯 땅에 엎어져 있었다. 이곳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마약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했다. 미국의 화려함 뒤에 숨은 진짜 미국의 모습이 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다음 행선지는 뉴욕. 워린 브로드웨이에서 전도피켓을 들고 복음을 외치며 큰소리로 찬양했다. 높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 복음을 선포했다. 인파가 몰려드는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떠밀려 가는 인파 속에서도 스피커를 들고 걸어가며 복음을 외쳤다. 뉴욕에서 가장 큰 센트럴파크에서는 2번이나 스킷을 공연했다. 그때는 누구 하나 제재하지 않는 것이 큰 은혜인지 미처 몰랐다.

이후 도착한 시카고는 공공장소에서 전도를 할 수 없었다. 공원에서 전도를 시도하려다 두 번이나 제재를 받았다. 그럼에도 전도의 열정이 불타던 우리는 공원을 거닐며 찬양을 불렀다. 결국 관리자가 나타나 우리를 공원에서 쫓아냈다. 관리자가 우리를 거리로 인도하는데도 워린 걸어가면서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 잠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미국인 남자 두 명이 과자와 음료가 담긴 박스를 들고 와 우리를 격려해 주었다. 또한 우리를 내쫓았던 관리인도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했다. 계속된 우리의 전도에 손을 치켜 올

리며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훨씬 많은 사람이 우리를 거부했다. 또한 우리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 우리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써서 도로를 달리면서도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 욕을 하거나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건물 곳곳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도 쉽게 동성애자들을 볼 수 있었다. 죄에 대해 영이 죽어 있는 그들을 보며 심령에서 기도가 터져나왔다. 이런 우리의 걸음에 어떤 이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하러 온 것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주님은 미국 곳곳에서 믿음의 증인을 세우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 마약중독자였다가 벗어나 이제는 회심하여 자신과 같은 마약중독자들을 섬기시는 현지 목사님,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전도자 스티브, 유진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기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윤에스더 목사님 부부 등 주님이 만나게 하셨던 교회들은 모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

### 보석 같은 믿음의 증인들을 만나다

주님은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십자가 복음만이 전부가 되는 시간을 허락하셨다. 이동하는 좁은 차 안에서 10명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부패함을 직면했다. 자신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지체들을 판단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날카로운 말로 모두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못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 하나 존재로 지체를 섬기고 사랑할 수 없으며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명확하게 보게 하셨다. 각자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은 우리를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빚어가셨다.

마지막 사역지인 시애틀 구세군교회에서의 ‘Give Thanks’를 주제로 섬긴 복음캠프를 통해 우리 각자 안에 무너져 있던 감사를 회복시켜주시며 ‘온 더 로드 유에스에이(On the Road USA)’의 대장정의 막을 주님이 내려주셨다.

[GNPNEWS]

김경희 선교사



▶ 캘리포니아 산타 마리아 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뉴욕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기획 | 창조 이야기 (23)

## 홍수 전에는 남극에도 나무가 가득했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립과학교육센터'의 회장인 지니 스캇은 미국의 중서부에 80개의 각각 다른 석탄층이 있고, 현재 이 세상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의 양은 오늘날 세계의 모든 생물(식물)량을 다 투입한다 해도 만들 수 없는 엄청난 양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엄청난 양의 석탄이 지구에 묻혀 있다. 스캇은 이어 "그 모든 탄층을 쌓으려면 엄청 많은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거기에 나는 "아니다. 바로 거기서 틀렸다."고 대답했다.

### 석탄은 세상을 물어버린 홍수의 결과

스캇은 지금의 세상을 보면서 예전에도 항상 그랬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현재 땅에서 발견되는 석탄은 홍수 전의 세상을 물어버린 홍수의 결과다. 그때는 훨씬 더 많



▶ 현재 남극의 모습. 창조 시에는 나무가 있었을 것이다.(출처: pixabay 캡처)

은 나무가 있었을 때이다.

한 예로 평방 1000마일(약 16km)의 석탄이 최고 200피트(약 61m) 두께로 쌓여 있는 몬타나의 탄광을 들 수 있다. 엄청 많은 양의 석탄이다. 가끔은 석탄 속에서 인공 유물이 발견된다. 손으로 흔드는 종, 철 냄비, 신발 밑창 등이 석탄 덩어리 안에서 발견됐다. 석탄의 생성에 관해서는 다음에 이야

기하기로 한다.

성경은 채소와 나무가 '온 지면'에 있었다고 말한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70%의 땅이 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은 식물로 덮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지구가 식물로 덮여 있었다. 남극에서도 '나뭇잎'을 발견했다. 남극 250마일 아래쪽에서 잎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극에

는 나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70%의 땅이 물 아래 있는 현재의 지구에서 오직 3%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많은 부분이 사막이나 빙하, 툰드라, 고산지대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은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말한다. 이것이 지구를 만드신 이유다.

###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지구에서 3%뿐

추측해 보면, 아마 홍수 전에는 80% 정도의 땅과 20% 정도의 물만 있었을 수도 있다. 그때는 대양이 없었다. 물은 지각 안에 있거나 머리 위의 장막에 있었을 것이다. 홍수 전에는 나무가 북극에서 남극까지 있었다. 대기 위의 물(창 1:7)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나 엑스선 같은 해로운 것들을 차단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태양은 빛 외에도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낸다. 엑스선, 감마선, 베타선 등은 몸에 아주 해롭다. 특히 엑

스레이로 익숙한 엑스선은 위험하다. 많은 사람들은 태양이 매일 우리에게 엑스레이를 보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콘크리트나 물이 엑스레이를 막아주지만 매일 수백만 개의 구멍이 우리 피부에 지금도 생기고 있다.

### 홍수 전에는 900세 이상 살아

하지만 홍수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성경은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900세 이상 살았다고 말한다. 아마 주름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를 창조론자라고 주장하던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900살까지 산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 달을 1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음력을 사용했는데 그 숫자들을 12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기적이다. "에녹이 65세에 므두셀라를 낳았다"(창 5:21) 마할랄렐을 포함하여 성경의 두 사람이 65세 때 아이를 낳았는데, 65를 12로 나누면 5살 반 때 아빠가 되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믿기가 더 어렵다. 정말로 그들은 900살까지 살았고 몸집도 더 컸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 다시 건너와 영국을 도우라

1800년이 넘게 기독교 문화가 찬란하고 화려했던 영국이 이제는 선교지(Mission Field)로 변하고 있다. 유럽의 관문인 이곳 영국은 선교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선교의 모판이 되는 곳이다. 하지만 영국은 다종교 사회로 종교적 포용력과 수용력을 추구하며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시크교 등을 비롯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다문화, 다종 언어의 사회로 변했다.

### 영국 그리스도인 25% 부활 믿지 않아

현재 수도 런던만해도 850만 인구에 130여 개국의 500여 민족들이 살면서 300가지 언어가 통용되는 다민족 메트로폴리탄 구조의 수도가 되었다. 총인구(6600만 명)의 71%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불과 150만 명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는 3%도 안 되는 수치다. 영국 그리스도인의 25%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영국인의 약 23%는 스스로

무교라고 주장한다. 복음주의 신자 1% 미만 국가가 유럽에 22개국이나 된다. 서구가 기독교 전과 국가에서 미전도 종족 국가로 다시 변모하고 있다.

### 영국, 두 번째로 큰 종교집단은 무슬림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집단인 무슬림이 300만이 넘어서고, 런던과 버밍엄은 테러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다. 그들은 영국법이 아닌 반 인권을 표방하는 샤리아(Sharia)법을 주장하고 자국을 무슬림화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 하고 있다. 앞으로 10~20년이 최대의 고비다.

영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메마르고 기진한 영국교회를 도와야 한다. 작금의 영국교회의 현실은 '라오디게아 교회'(계 3:14~22) 같다. 이들은 철저한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숭상하면서 영적인 피폐와 시력을 상실하여 마시기를 계속해도 목마른 세상의 세속 잔물을 마시면서 영적인 빈곤과 외로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

다. 이것을 막기 위해 기독교의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쏘시게 역할을 해야 한다. 복음의 열정이 있는 역 선교(Reverse Mission)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복음의 역 수출 필요

선교여정의 동력이 많이 저하된 영국과 유럽의 국면을 되살리기 위해 한국교회의 열정 어린 기도와 후방지원이 필요하다.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처럼 탕부모 구하기(Saving the Prodigal Parent)를 위해 복음의 역 수출이 필요한 것이다. 복음의 생명력은 콘크리트 같이 세속화된 영국과 유럽 땅에 다시 뿌리내려 머지않아 기쁨으로 그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한다.

또한 영국의 제2도시 버밍엄의 상황도 종교적으로 선교적으로도 녹록치 않다. 100만 주민의 절반 이하의 인구인 46.1%가 기독교인이지만 6%만이 교회에 출석한다. 그리고 이곳 무슬림은 2011년에 비해 40% 증가했다. 이중 30%가 파키스탄인이다. 매년 버밍엄 인



▶ 영국 내 이슬람 인구는 300만이 넘었다.(출처: godntalk.com 캡처)

구가 1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일 주일에 200명씩 출산하는 셈이다. 또 버밍엄 내 모스크 수는 161개이며 과격(테러)한 무슬림의 온상이다.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

영국 전역에 영적 재부흥과 기도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영국 내 무슬림(1600개 모스크, 25개 이슬람

대학, 영국인 개종 등)확장이 멈추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GNPNEWS]

영국 = 서정일 선교사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10-6326-4641, 070-7417-0408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아프리카의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누렸어요”

내전이 끊이지 않는 나라, 에볼라로 고통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이하 민주콩고)에 한국의 청소년들이 복음을 들고 지난 8월 4일부터 20일까지 그 땅을 찾았다. 기독교인 헤브론원형학교에 재학중인 4명의 학생들과 지도교사 2명이 그동안 기도해 오던 이 땅의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짧지 않은 여정을 시작했다. 반군의 활동과 에볼라 발생으로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시작된 여정. 이번 인터뷰는 올해 18세, 19세 되는 11학년 학생들과 진행했다.

- 아웃리치팀은 자원자 신청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지원할 때 두렵지는 않았어요?

이의연(이하 의연): “원서를 받아 들고 기도실에 가서 주님께 물었을 때 이사야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사 6:8)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의 마음은 준비됐으나 몸은 쉽지 않았죠. 부르신 것은 확실한데 부담스러운 것이 많았어요. 선발되고 난 후에, ‘정말로 됐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할 일만 남았구나.’라는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죠. 이후에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도 치열했죠.”

최선민(이하 선민): “준비하면서 약속의 말씀인 스가랴를 읽고 말씀을 붙잡자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 붙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학과에도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민주콩고로 부르신 주님과 계속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저는 학교에 입학한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아웃리치를 준비하게 됐어요. 학교생활만으로도 굉장히 낯설고 버거운 상황이었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서 마음에서 열불이 난 때도 몇 번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까지 더해진다는 생각에 부담스러웠어요.”

## ‘제가 갈게요’ 자원자 가운데서 선발된 아웃리치팀

아웃리치팀은 민주콩고에서 두 번의 복음캠프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준비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모두 강사가 되어 총체적 복음을 민주콩고의 다음세대에게 선포하기로 했다. 팀원 모두는 3박 4일간 진행될 강의 내용을 나누고, 강의안을 준비했다. 7월초 여름방학이 시작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아웃리치 준비가 시작됐다.

정보비(이하 보비): “방학 후 얼마 안 지나서 강의안 준비를 위한 합숙도 했죠. 합숙은 너무 즐거웠

는데, 문제는 방학을 했음에도 강의안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죠. 놀기도 양심에 찔리고, 복음스터디를 하자니 집중도 잘 안 되면서 시간가는 점점 다가오더군요.”

김사랑(이하 사랑): “치열했던 영역은 재정이었어요. 다른 지체들이 모두 재정을 채우고 저만 남았을 때는 기도도 많이, 열심히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주님과 교제도 잘 하는 것 같은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교육 선교사인 엄마 아빠 등 우리 가족이 모두 선교사로 헌신해 있어서 더 잘 안 채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렇게 믿음으로 재정을 구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는지도 몰랐죠. 준비물품을 챙기다보니 그곳에 가서도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육체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구했어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나를 민주콩고로 부르셨구나 확증하는 마음을 갖기도 했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값진 시간, 주님과 진한 추억을 남긴 것 같아서 어느 때보다 행복한 방학이 된 것 같아요.”

- 민주콩고에 첫 발을 내딛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의연: “저는 출국할 때는 두근두근했어요.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한 것의 열매를 본다는 설렘이 있었죠. 물론 어느 정도 어려움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초청장과 건강 카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여권이 압수되기도 했어요. 짐을 찾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짐꾼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우리 짐을 옮겨 주고 돈을 받기 위해 주인인 우리도 우리 짐에 손을 못 대게 했죠. 그들을 향해서 화를 터뜨렸어요. 처음 나를 부르셨던 말씀은 다 잊어버린 채로요. 물론 주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물건 하나 없이 잘 마무리되어 무사히 나왔지만 저의 마음



©복음기도신문

## 최선민 형제, 정보비, 김사랑 자매, 이의연 형제 (헤브론원형학교 11학년)

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 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겠느냐고요. 저는 돈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돈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때 창 밖에 스쳐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 보며, ‘아,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 주셨구나.’ 이 자리에서 복음을 외쳐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하셨죠. 제 안에 격동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 주님께서 그 땅으로 불러주신 목적을 다시 세워 주셨네요. 그 마음을 품고 진행된 첫 복음캠프는 어땠나요?

보비: “저희가 도착한 다음날 첫 번째 복음캠프를 진행했어요. 민주콩고의 동부 접경지대에 위치한 고마 지역의 카니사라 몽구(하나님의 교회)에서 중학생부터 20대 초반의 교회 성도들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어요. 저는 통역을 위해 강의안을 고치는 것이 제일 어려웠어요. 제 문장이 수식어도 많고 길었거든요. 수정도 거의 못한 상태로 강의가 진행됐어요. 그러다보니 통역해 주시는 선교사님과 계속 안 맞고, 통역이 쉽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마냥 참기보다, 솔직하게 주님께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낮게 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이심을 경험하게

해 주셨어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강의가 어떠해도 주님이 완전한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믿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사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캠프가 다 끝난 광고시간이었어요. 성경책을 주겠다고 하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방방 뛰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지요. 그곳은 성경이 운동화 두 켤레 정도의 값이 들어요. 아끼고 아껴야 성경책을 살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훈련생들이 선물로 성경책을 받으며 정말 기뻐했던 거죠. 이미 캠프를 통해 자신의 죄인 됨을 보고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생명을 온 몸으로 누리는 그들의 기쁨이 고스란히 저에게도 전달됐어요. 말씀에 목말라하던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는 저도 행복했어요. 주님이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에게 일하셨고, 진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셨구나. 이걸 보았어요.”

## 성경책을 받고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 인상적

고마에서의 첫 복음캠프를 마친 이들은 곧바로 하룻길을 달려 키부호(湖)에 있는 이주이 섬에 도착했다. 우리나라 통영시보다 조금 더 큰 286km 규모의 섬인 이곳에 있는 미심궤교회에는 40여 명의 다음세대가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께서 친히 일하신 영광을 봤던 첫 번째 복음캠프를 경험한 이들에게 두 번째 복음캠프는 어땠을까?

의연: “현장 선교사님께서 이곳의 청소년들은 도심지역에 비해서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게다가 스와힐리어로도 소통이 안 되는 지방언어를 쓰니까 길게 설명을 하다 보니 강의시간이 길어졌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는 학생

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제가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데도 웃는 거예요. 강의를 마치고 복음이 외면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 울고 있는 저에게 선생님이 해 주신 한 마디가 저의 마음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짓밟힐 복음이 아니다” 감동이 있었죠.”

사랑: “주님은 노련하고 능숙한 강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먼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기에, 순종만 요구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민주콩고에서의 두 번의 캠프 가운데 기억나는 현지인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입을 모아 ‘고마 공동체’ 일곱 형제자매를 외쳤다. 선교사님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현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각자 소감을 늘어놓았다.

의연: “신기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여기도 있구나! 문화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선교완성이



제공: 헤브론원형학교

▶ 고마 공동체와 함께 하는 말씀기도 모임

가능하겠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또한 이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다른 현지인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요. 한 친구는 민주콩고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나눠주기도 했어요.”

사랑: “십자가 복음이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다 똑같았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말도 피부색도 문화도 다 다른데 같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섬김이 몸에 밴 친구들이에요. 저희가 섬길 게 없을 정도로, 미안해질 정도로 섬겨줬어요. 그 친구들과 있었던 그 시간이 저희에게 선물과 같았어요. 그 넓은 아프리카에, 그 콩고에, 그 고마에, 그 곳에 그 지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 귀했어요. 그 지체들 안에 있는 주님의 (6면에 계속)



제공: 헤브론원형학교

▶ 이주이 섬복음캠프를 마치고 선물 받은 성경책을 들고 있는 훈련생들과 함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꿈 (2)

#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코드 빠진 전기제품과 같다”

죄인인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꿈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 그 꿈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생명 안에 들어온 죄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도 인간이 다시는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실감하고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게 된 비참한 실존은 저주 중에서도 최악의 저주이다.

첫 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역사 속에 펼쳐진 모든 비극적 고통과 고난과 문제의 무게를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과 영원히 분

리된 인간의 저주스런 상황과는 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원형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코드 빠진 전기제품이나 다름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1)

존재의 근원이자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간은 존재 자체로서 이미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 안에서 놀라운

꿈을 꾸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일러스트-노주나

성경이 선언한 불가능한 이상과 꿈 중에서 가장 놀라운 꿈이 있다

면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임마누엘’을 꿈꿀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다. 죄인의 편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구렁이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비극도, 불행도 절망의 터널을 비집고 나오는 희망의 빛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한다면.

##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이루시는 하나님

존재하는 공간 안에서 함께 하는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임마누엘의 약속은 완전한 혼연일체(渾然一

體), 즉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연합에까지 이른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신인합일(神人合一)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 못할 신비한 연합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었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자 약속이었다. (2017년 7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1년 52주 연속. 연쇄. 초점집중 기도를 위한 기도정보 모음집

##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8

“느헤미야52기도 1권 복음의 영광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기도정보를 읽고 기도하다보면 내 옛자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오직 다 이루신 주님만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과 느헤미야52기도가 우리 부부를 살렸습니다” \_국 000선교사 부부

1~6권 기도정보집은 특별한 개정이 없는 한 계속 사용

간금기도정보 각 권 별책 전 6권

정가 74,000원, 세트가 66,000원 (총 12권)

구입문의 Purchase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 언어와 피부색이 달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너무 떠나기 힘들었고 여기 와서도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언어도 생김새도 문화도 다른 두 민족이 서툰 서로의 언어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찬양하던 그날 밤을 되새겼다.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 어느 밤에 저희가 갑자기 찬양 집회를 하게 됐어요.” “소소하게 한 명이 부른 찬양을 따라 부른 게 시작이었어요.” “언어가 다른 우리가, 그간 서로 조금씩 배운 서로의 언어로 기쁘고 즐겁게 춤추며 화음으로 찬양하는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 이번 아웃리치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비비: “‘주님과의 신혼여행’이요. 너무 아름다운 것도 많이 보고 누리게 해주셨어요. 저희가 강의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며 많은 진리를 새롭게 깨닫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님짜리, 그 생명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 큰 은혜였어요. 저는 스스로를 병든 자아로 인식하는 게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강의 전에 선생님이 때면 “뽀뽀 자매의 자아인식은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강의시간에 주님의 생명을 누렸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이 험한 세상에 나 혼자 두시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감격과 감사잖아요. 그것을 누리는 신혼여행이었어요.”

의연: “‘NIBC(Not I But Christ), 내가 아닌 주님!’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시간동안 제가 정말 부족했던 영역은 섬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교만 했고요. 이런 모습만 보면 저는 선교사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강의 중 외쳤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롬 8:35)라는 말씀이 내 모든 자아인식을 끊으시고 결론을 내주셨어요. ‘내가 아니고 주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저는 이 진리뿐이에요.” [GNPNEWS]

H.M.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복음을 기쁘게 듣는 교마 교회 성도들

제공: 헤브론원형학교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9. 9. 19 ~ 10. 2 (가나다 순)

개인

강주선 고병문 고은영 김동희 김애심 김혜신 노은옥 박숙자 박종순 안민자 안수경 윤경석 이경형 이봉덕 이영옥 이은주 이진희 장은희 전정희 정영숙 조경미 조명숙 조재순 조형광 주유순 차정규 황지환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포꿈꾸는교회 김화제일교회 동행교회 모리아선교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선한목자교회 순회선교단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신한테크 열매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주소망교회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기도원 평안교회 헤브론원형학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을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병상에 계시던 외할아버지,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소천하시다



사랑하는 외할아버지 김영동 어르신(사진)께서 2019년 9월 28일 03시 25분경 향년 93세로 하늘나라에 먼저 부름 받으셨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 연로하신 외할아버지는 치매와 왼쪽 반신 마비로 병원에 누워 계셨다. 가래 때문에 종종 석션(suction, 기도의 분비물을 흡입하는 것)을 하면서 기저귀를 차고 기력이 없으신 채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보니 마지막을 준비해 드려야 할 때라는 마음이 들었다.

1928년 10월 29일 경북 청송군에서 태어난 외할아버지는 일제식민지 시대부터 6·25전쟁, 한국 산업화의 격동기를 보낸 주역이었다. 젊은 시절 대구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시고, 꽤 오래

전 할머니와 사별한 이후 최근 10여 년은 고향으로 귀향, 홀로 거주하며 고혈압, 치매를 앓으시다 반신마비 상태에서 폐렴으로 별세하셨다. 정신이 온전하실 때가 짧으셨지만 안마를 해드리고 손도 잡아드리며 병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어 드렸다.

짧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보인 나의 할아버지에 대한 전도에 대해 조롱 섞인 말을 듣기도 했다. 그러다 때로는 낙심되어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으로 다시 찾아뵈실 마음을 주셨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긴 시간 깨어 경청하며 손자의 말을 잘 들어주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할아버지께 때를 따라 총체적인 복음의 진리를 들려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주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셨다. 그렇게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휴가가 끝났을 때, 더는 병상을 지키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할아버

지와 함께 해주실 것을 의지했다. 그리고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9월 28일 새벽, 하늘나라로 먼저 부름을 받으셨다.

### 겸손히 죄인 됨을 고백하신 할아버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겸손히 자신의 죄인 됨을 자백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며 아멘을 계속 외쳐 주셨던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잊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뵈러 원주로 가는 내게 아들 주안(5)이는 할아버지가 안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아빠가 도착할 때까지 오늘은 안 돌아가시



일러스트=고은선

게 기도했구나?” “아닌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계속 안 돌아가시게 기도한 건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흔들리는 내 마음에 그렇게 들려주셨고, 영원한 약속을 붙들게 하셨다.

###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

마지막 뵈던 날 저녁, 할아버지께 마음껏 사랑한다 고백해 드렸다.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더욱 많이 사랑하시니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부르며 의지하시라는 내 말에

소리 내어 답해 주셨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아쉽고 죄송한 시간들도 스쳐가고 마지막으로 곁을 더 지켰더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기뻐할 수 있었다. 남겨진 우리의 삶도 더욱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주님이 이끄실 것을 소망한다.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간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한다. [GNPNEWS]

권효석

###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본지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 부흥을 위하여

# 해외에 정착하는 탈북민들, 그들이 뿌리내릴 곳은 어디인가?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최근 일본 NHK방송이 영국 런던의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뉴 몰든역 일대에 탈북민 500여 명이 정착하면서 ‘리틀 평양’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탈북민들이 한국이나 미국을 등지고 굳이 영국을 택한 이유는 북한이 적으로 간주하는 미국 등으로 갈 경우, 두고 온 가족이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해외 정착한 탈북자들’이라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탈북민들이 난민 지위로 미국에 입국한 숫자는 감소했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을 중심으로 가족이민, 취업이민 등의 형태로 미국에 정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를 통해 최근 알려진 탈북민 사례를 소개한다.

### 미국, 아직은 희망의 땅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 중국으로 탈북한 김씨는 2006년 미국의 탈북민 구출 단체인 ‘링크

(Link)’의 도움으로 중국 심양 주재 미국 영사관을 거쳐 2007년 미국에 들어왔다. 그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이 설립한 부시 센터 인권증진팀에서 ‘조셉 김’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씨의 사례처럼 미국은 2004년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에 서명하면서부터 탈북민들이 난민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됐다. 2006년 5월, 처음으로 6명의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 2019년 8월 현재까지 218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했다. 그러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수는 급감했다. 이유는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 발표한 ‘입국금지 행정명령’ 대상국에 북한이 포함된 점, 둘째, 북·중 국경 경비의 강화로 탈북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난민으로서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다른 국가에서 온 모든 난민과 동등하게 기본적인 법률·재정적 지원을 받아 노동허가증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미국 정부의 지원은 중단된다. 미국 입국 탈북자들은 그 이후, 한인 사회나 자선단체, 교회

등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

### 캐나다는 줄어드는 반면, 영국은 늘어나는 탈북민

캐나다의 경우 약 2000~3000명이던 탈북민이 지금은 100가정 정도로 줄면서 탈북민 사회가 크게 위축됐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10년 전부터 캐나다에 정착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는 결론에 따라 난민 지위 상실이 결정돼 탈북민들의 난민 신청 기각과 추방으로 캐나다를 떠나야 했다.

영국 런던의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뉴 몰든역 일대의 탈북민들은 일단 한국으로 빠져 나왔지만 다시 ‘탈남(脫南)’해 영국으로 온 사람과, 탈북해 바로 이곳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다. 이들은 영국에서는 북이건, 남이건 상관없이 ‘코리아’로 보는 경우가 많아 ‘북한’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장점으로 여기고 있다. 이곳에서는 2017년부터 탈북민 지원단체 ‘커넥트:북한(Connect:North Korea)’이 이들이 영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과, 생활상담과 카운셀링 외에 탈북자의 경험과 현실을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다.

[GNPNEWS]



▶ 영국 탈북민 지원단체 ‘커넥트:북한’의 지원을 통해 탈북민이 일대일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캡처)

## 복음의 능력

###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죄에 대해 엄격한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죄를 용서해주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인간들과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분께 불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을 가져온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 성령님께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나아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성품을 믿는다고 말할 권리도 없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GNPNEWS]

<제자도(2012), 오스왈드 챔버스>



# RETURN to the GOSPEL

## 2019 다시복음앞에 금식기도성회

2019 다시복음앞에

# 십자가가 복음

2011 다시복음앞에 '오직 복음으로'  
2013 다시복음앞에 '오직 성경으로'  
2015 다시복음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16 금식기도성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2017 다시복음앞에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 갈라디아서 6:14 |

### 2019.10.31(목) 오전 10시~ 오후 10시

장소 | 선한목자교회 (담임: 유기성 목사)

주관 | 복음기도동맹

주 제 : '십자가 복음' (갈라디아서 6:14)  
주관.주최 : 복음기도동맹  
참가비 : 헌금  
문의 : 복음기도동맹 사무국  
010-7707-9668, 070-4144-0104  
이메일 gnpall@daum.net

### 강사진 | (가나다순)



강정구 선교사  
(순회선교단 중앙아시아부)



김경석 목사  
(강서침례교회)



김용의 선교사  
(LOG Mission)



이용남 선교사  
(WMC선교회)



하도균 목사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 교수)